

제52대 한국언론학회

학회연혁 작성사업 보고서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한국언론학회의 주요 활동과 변화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학회 연혁을 작성하고 이를 매년 지속적으로 보완·갱신하는 것은 학회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존하고 후대에 계승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한국언론학회는 2009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한국언론학회 50년사: 1959-2009>를 편찬하면서 1959년 창립 이후 2009년까지의 간략한 연표를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2010년부터의 연혁이 체계적으로 작성되지 않아 약 15년간의 기록에 공백이 있었으며, 기존에 작성된 2009년 이전의 연표에서도 일부 날짜, 행사명, 인명 및 세부 내용의 오류와 누락이 확인되었다. 이에 제52대 집행부는 학회의 67년 역사를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학회 연혁 정비 및 확충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연혁 작성 및 검수

2026년 4월, 원로 언론학자인 김영희 전 서울대 객원교수가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여 1959년 학회 창립부터 2025년까지의 연혁을 새롭게 정리하기로 하였다. 연혁 작성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 한국언론학회 50년사 편찬위원회(편)(2009). <한국언론학회 50년사: 1959-2009>. 한국언론학회.
- 한국언론학회 사무국 소장 연도별 <한국언론학회 총회 자료집>
- 한국언론학회 홈페이지의 역대 학술대회 및 주요 사업 자료
-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등 언론보도 및 온라인 자료

이와 같은 자료 조사와 대조 작업을 거쳐 2026년 8월 23일 연혁 1차본이 완성되었다. 이후 진보래(중부대), 정성은(성균관대), 이종숙(고려대, 커뮤니케이션과 역사 연구회장), 윤상길(신한대) 등이 신문기사와 기존 사료 등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1차본을 검수하고 오류 및 누락 사항에 대한 수정 의견

을 제시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2026년 9월 7일 김영희 박사가 수정본을 제출하였다.

다. 홈페이지 공개 및 역사자료 확충

검수된 연혁은 2026년 9월 28일 학회 홈페이지에 시범 게시하여 추가적인 오류와 누락 사항을 점검하였다. 이후 보완 작업을 거쳐 2026년 10월 12일 학회 홈페이지에 공식 게시하고 학회원에게 공지하였다. 최종 연혁에는 1959년 6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67년간 총 1,592건의 주요 기록을 수록하였다.

아울러 연혁 작성 과정에서 확인한 학회 초창기의 주요 신문기사와 언론보도 자료를 진보래 (중부대)가 별도로 정리하여 학회 역사 페이지에 <뉴스 아카이브>로 홈페이지에 함께 게시하고, 회원들에게 공지하였다. 이를 통해 연혁이 단순한 사건 목록에 그치지 않고 향후 한국 언론학의 제도화와 학문 공동체 형성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기초 사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26년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특별기획 세션 <우리는 어떤 역사를 써 왔는가? 한국 방송 100년과 언론학 70년>에서 김영희 박사가 “한국언론학회 67년의 연혁, 성찰과 과제”를 발표하여 연혁의 작성 과정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학회 역사 기록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라. 향후 과제

이번 사업을 통해 1959년 창립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학회의 주요 역사를 하나의 연속적인 기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는 매년 해당 연도의 주요 학술대회, 학술·정책 사업, 조직 및 제도 변화, 대외 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추가하여 연혁을 상시적으로 갱신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원들의 제보와 추가적인 사료 발굴을 통해 기존 연혁의 오류와 누락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함으로써, 학회 연혁이 한국언론학회의 역사와 학문적 유산을 축적하고 계승하는 공식적인 역사 기록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